

- 주요 뉴스: 2022년 글로벌 경제, 오미크론 확산이 연초 성장을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
 - 미국 대통령,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
 - 중국 정부,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계획
 - 일본은행, 내년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필요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경제성장 지속 기대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1.4%], 달러화 강세[+0.1%], 금리 하락[-1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양호한 연말 소매매출, 박테크주 강세 등으로 사상 최고치
유로 Stoxx600지수는 경기방어주 강세 등으로 1개월 만에 최고 수준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향후 양호한 경기회복 전망 등이 배경
유로화가치는 0.1% 상승, 엔화는 0.4% 절하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기관투자자의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 등이 반영
독일은 ECB의 자산매입 축소 전망 등으로 1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7.2원, -0.3원) 약보합, 한국 CDS 보합

		12/27일	12/24일	전일대비			12/27일	12/2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791.2	휴장	1.38%	국채 금리 10y	미국	1.48%	휴장	-1bp
	유럽	485.49	482.51	0.62%		독일	-0.24%	-0.25%	1bp
	중국	3,616.0	3,618.1	-0.06%	CDS 5y	한국	21bp	21bp	0bp
	일본	28,676	28,783	-0.37%		중국	41bp	41bp	0bp
	한국	2,999.6	3,012.4	-0.43%	위험 지표	EMBI+	-	394	-
환율	달러지수	96.07	휴장	0.06%		VIX	17.68	휴장	-1.56%
	유로화	1.1328	1.1319	0.08%		WTI유	75.57	휴장	2.41%
	엔화	114.87	114.38	-0.43%	원자재	구리	445.9	휴장	1.64%
	위안화	6.3710	6.3677	-0.05%		금	1,812.1	1,810.3	0.10%
	원화	1,186.8	1,186.6	-0.0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2022년 글로벌 경제, 오미크론 확산이 연초 성장을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

- 최근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이 증가하면서 인력 부족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, 소비자들도 외출에 신중한 모습.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초 경제활동 감소 가능성을 반영하여 1/4분기 성장률을 하향 조정
- Moody's Analytics의 Mark Zandi는 내년 미국의 1/4분기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(5.2%→2.2%)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. Pantheon Macroeconomics도 같은 기간 성장률을 하향(5.0%→3.0%)
- Barclays의 Pooja Sriram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, 정부가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소비자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. 한편 영국 정부는 봉쇄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있으나,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
-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도 경제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.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의 금년 연말 연휴 기간 소매매출의 큰 폭 증가를 고려 시 오미크론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대통령,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

- 최근 확진자 증가 및 인력 부족에 따른 항공편 취소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,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가들의 지침을 따를 뿐 아니라,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

■ JP모건,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약세장(bearish) 시각은 과도한 수준

- Dubravko Lakos-Bujas 스트래티지스트는 주가 상승이 조만간 종료된다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. 투자자들의 낮은 주식 보유 비중, 대규모 자사주 매입, 내년 1월 연초 효과 등을 고려 시 지금 당장 대규모 매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

■ 영국 보건부, 오미크론 관련 추가 봉쇄 조치를 고려하지는 않는 상황

-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, 연내에 추가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피력. 다만 내년 추가 봉쇄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

■ 중국 정부,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계획

- 재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이른 시기에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. 기업을 돕기 위해 또 한 차례의 감세와 비용 축소 조치들을 시행하고, 적절한 수준에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
- 인민은행 역시 경제성장 촉진, 낮은 조달비용 여건 제공 등을 위해 유연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. 또한 자본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, 부동산 부문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첨언

■ 중국 11월 공업부문 이익, 전년동월비 증가율 큰 폭 둔화. 원재료비 상승 등이 원인

- 국가통계국에 따르면, 같은 달 공업부문 이익은 8059.6억위안으로 전년동월비 9.0% 늘어나 10월(24.6%) 대비 둔화. 국가통계국의 Zhu Hong은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 억제에 노력하지만, 이와 관련된 기업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

■ 일본은행, 내년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필요

- 12월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으며, 1월에 이와 관련된 위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. 일부 위원들은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

■ 일본 11월 소매매출, 전년동월비 1.9% 증가. 연료 부문 등이 호조

- 경제산업성에 따르면, 같은 달 소매매출은 12조7990억엔을 기록. 부문별로는 연료와 식료품이 각각 전년동월비 29.2%, 4.1% 증가. 반면 자동차 판매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 차질 등으로 14.1% 감소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트(12/2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2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: 8.1, 11월(11.8), 예상치(13.2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2/2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, S&P/케이스-실러 주택가격지수
- 미국 12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, 일본 11월 실업률, 산업생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, 임금 상승폭이 주요 변수 - 블룸버그

(What Inflation in 2022 Will Teach Us About Capitalism)

- 공급병목 완화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2022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.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수요 증가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GDP에서 비중이 크게 감소했던 임금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중요한 변수로 부상
-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은 잠재적 임금상승 요인. 특히 주요 기업의 생산량 증대 노력을 고려하면, 임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. 임금상승 비용의 소비자 전가 여부가 향후 고물가 고착화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

■ 미국 식료품 가격, 내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- WSJ

(These Food Items Are Getting More Costly in 2022)

-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6.8% 상승하며 40년래 최고치. 식료품점 구매를 포함하는 가정식량지수(The food-at-home index)는 6.4% 올랐으며, 이중 소비가 많은 육류, 가금류, 생선 및 계란의 가격은 12.8% 급등
- 아울러, 많은 식품 제조업체들이 2022년 다양한 제품에서 가격 인상안 발표를 계획. 리서치 기업 IRI은 내년 상반기 식품가격의 5% 추가 상승을 예상. 이는 임금, 재료비, 운송비 등의 인상 등으로 비용의 소비자 전가가 용이해진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

■ 중국의 해외 상장 승인제 도입, 해외자본 유치의 실효성은 불확실 - Financial Times

(China increases scrutiny of companies seeking overseas listings)

■ 미국 스타트업, SPAC·사모펀드 등의 대규모 투자는 과도한 기업가치 초래할 우려 - WSJ

(The \$900 Billion Cash Pile Inflating Startup Valuations)

■ OPEC+, 회원국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수급 불균형 유도할 가능성 - 블룸버그

(Expect More Turbulent Years Ahead for the Oil Producer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